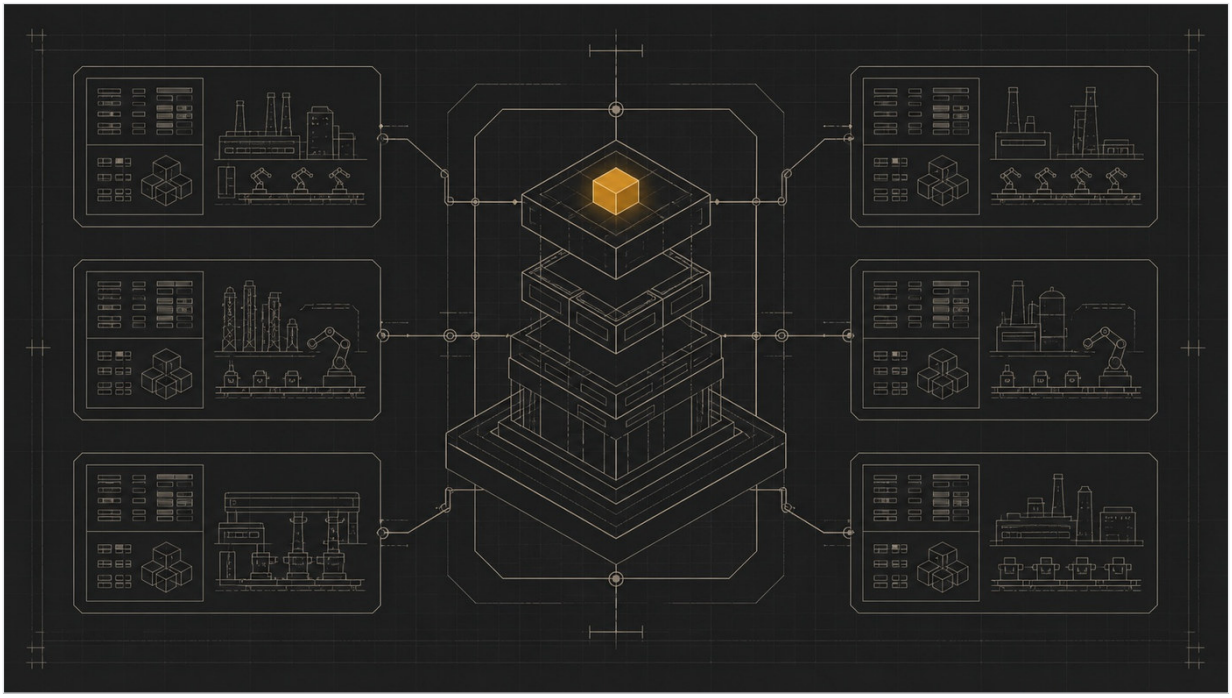
회사소식

웨이스, 2026년 제조데이터 표준화 참조모델 개발기관 컨소시엄 주관 선정

방동걸 (주)웨이스 대표이사

2026년 5월 15일

(주)웨이스가 2026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(공고 2026-247호)에서 참조모델 개발기관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장비마다 제각각인 국내 제조 데이터를 국제표준으로 통일하는 국가 표준화 과제를, 웨이스가 컨소시엄을 이끌며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. 제조 데이터를 VEXPLOR로 다뤄 온 웨이스가 이번 선정 소식을 전합니다.



참조모델은 공장마다 다시 그리던 것을 한 번에 그리는 일입니다.

01

사업 개요

이번 사업은 공장 설비와 제품 데이터를 국제표준 AAS(자산관리쉘, Asset Administration Shell, IEC 63278) 형식으로 통일하기 위한 참조모델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. 웨이스는 대구대학교,

스마트제조혁신협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**주관기관**을 맡았으며, 총사업비는 8.72억 원 규모입니다.

기술 영역은 AAS(IEC 63278)를 중심으로 AASX, eCl@ss V16.0, BaSyx, AAS Validator 등 Industry 4.0 표준 스택을 폭넓게 아우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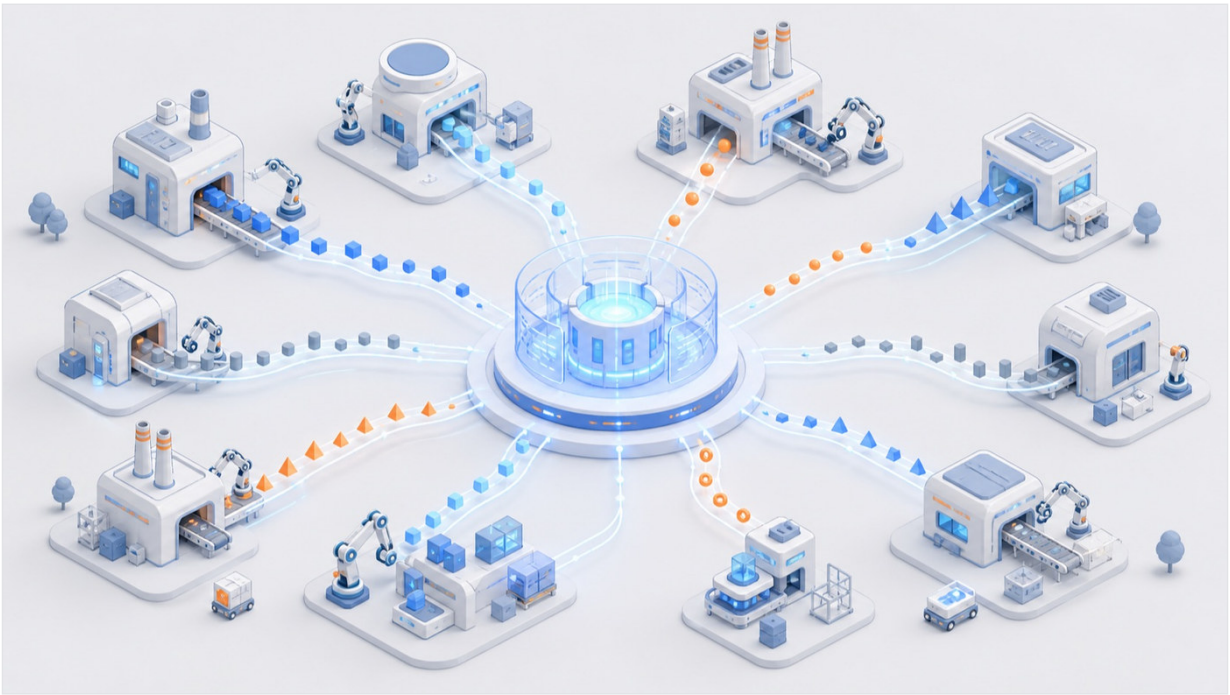
02

무엇을 만드나

이번 과제에서 웨이스가 개발하는 산출물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참조모델 70건
- 가이던스 70건
- Reference Bundle 7건
- 검증보고서 70건, 엑셀 체크리스트 70건
- 개발계획서 샘플 10건

웨이스는 2026년 6월 8일 최종 산출물 제출을 마쳤으며, 자동 검증 게이트 117개 항목을 모두 통과(PASS)했습니다.



표준은 컨소시엄이 함께 만들 때 표준이 됩니다.

03

웨이스의 차별점

웨이스의 가장 큰 강점은 AAS를 연구하고 학습하는 데 그친 기관이 아니라, **AAS를 실제로 구현해 운영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**이라는 점입니다. 표준을 문서로 정의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동작하는 구현체로 검증해 온 경험이, 국가 표준 참조모델 개발의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.

04

의의

장비마다 데이터 형식이 달라 공장 간, 시스템 간 데이터가 끊기던 국내 제조 환경에서 국제표준 AAS 기반 참조모델은 데이터 상호운용성의 출발점이 됩니다. 웨이스는 이 표준을 직접 만드는 주관기관으로서 제조 데이터 표준화의 한 축을 맡습니다.

WACE(웨이스)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.

원문 blog.vexplor.com/post/wace-2026-manufacturing-data-standardization
발행 2026년 5월 15일 · 방동걸 (주)웨이스 대표이사

회사 주식회사 웨이스 (WACE Inc.) · 대표이사 방동걸 · 사업자등록번호 439-87-02852
주소 (18462) 경기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, 에이동(A동) 1702-1708호 (영천동, 실리콘앨리동탄)
연락처 전화 070-4730-0629 · contact@wace.me
홈페이지 wace.me · linkedin.com/company/wace-inc

원문 홈페이지 링크드인